

SPORTS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또또또 햄스트링 부상’ 김도영, 시즌 아웃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또다시 햄스트링 손상으로 이탈했다. 올해만 3번째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시즌 일정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은 주전 타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사진제공=KIA 타이거즈



3경기 만에 3번째 낙마…부종으로 2~3주 후 재검진

순위싸움 중 청천벽력 악재…외인 위즈덤 등 살아나야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또다시 햄스트링 손상으로 이탈했다. 올해만 3번째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시즌 일정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은 주전 타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김도영은 지난 8일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NC다이노스와의 주말 1차전 경기에서 앞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좌측 햄스트링 부상이다.

앞서 김도영은 지난 7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5회말 상대 윤동희의 3루 땅볼 타구를 처리하다 햄스트링 통증을 느꼈다.

그는 해당 타구를 한 번에 잡지 못하고, 공을 다시 주우려다 불편함을 느낀 듯 절뚝였다. 이어 곧바로 박민과 교체됐다.

김도영은 8일 창원 소재 병원에서 MRI 검진을 받았고, 구단 지정병원에서 크로스 체크를 한 결과 왼쪽 햄스트링 근육 손상 소견을 받았다.

구단은 “현재 부종이 있어 2~3주 후 재검진을 통해 정확한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김도영은 부상 복귀 후 단 3경기 만에 또다시 전열에서 이탈했다.

올 시즌 3번째 햄스트링 부상이다.

김도영은 올해 정규리그 개막전인 지난 3월 22일 NC와의 경기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다쳤다. 손상 1단계(그레이트 1) 판정을 받은 그는 한 달 동안 회복과 재활을 거쳤다.

4월 25일 다시 1군에 복귀를 한 김도영은 5월 27일 기용전에서 또다시 허벅지를 움켜쥐었다. 5회말 2루 도루를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허벅지 통증을 느꼈고, 햄스트링 손상으로 말소됐다. 이날은 첫 부상보다 심각한 손상 2단계(그레이트 2)였다.

KIA는 김도영의 부상 재발 방지를 위해 재활에 온 힘을 쏟았다. 이후 7월 22일 재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미 15일부터 캐치볼과 테배팅 등 가벼운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어 본격적으로 기술훈련을 했고, 1번의 연습경기를 거쳐 8월 2일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곧바로 경기를 뛰지는 못했다. 2~3일 한화의 경기기 비로 취소됐기 때문이다. 그의 복귀전은 5일 롯데와의 주중 첫 경기였다. 이날부터 주전으로 뛰었던 그는 주중 마지막 경기에서 복귀 후 첫 안타를 때려냈지만, 다시 부상병이 됐다.

KIA는 10일 경기를 포함해 정규시즌 41경기만을 남겨뒀다. 김도영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남은 주전 타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특히 중심타선을 이끌고 있는 최형우, 나성범, 위즈덤 등이 제 몫 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즈덤의 후반기 상황은 좋지 않다. 15경기에서 8안타 1홈런 2타점 14삼진 타율 0.145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그나마 변수로 꼽혔던 홈런은 실종됐고, 헛스윙만 늘어가고 있다.

올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최형우도 후반기 15경기 15안타 2홈런 5타점 타율 0.242로 주춤하고 있다.

후반기에 돌아온 나성범은 15경기 48타수 14안타 1홈런 5타점 타율 0.292를 기록했다. 점점 페이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 이상의 활약이 필요하다.

김선빈 역시 14경기 48타수 13안타 2홈런 6타점 타율 0.271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김도영의 공백과 다른 타자들의 부진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들이 더욱 분발해줄 필요가 있다.

후반기 치열한 순위싸움을 펼치고 있는 KIA가 악재를 딛고 반등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세한대 유도팀, 하계 대학연맹전 ‘금빛 메치기’

단체전 결승서 동의대 4-0 완파…김민성, 개인전 은·최우수선수상

전남 세한대학교 유도팀이 하계 대학유도연맹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세한대 유도팀은 최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하계 전국남여대학유도연맹전’ 제6급 단체전 결승에서 동의대를 4-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4강에서 국제대학교를 4-1로 꺾고 결승에 오른 세한대는 결승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빛 메치기를 선보였다.

지난 4월 춘계 대학연맹전과 7월 청풍기 전국대회에서 연속 3위의 아쉬움을 삼켰던 세한대는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명실상부 전남 유도의 자존심이자 다크호스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단체전 우승에 이어 개인전의 결경사도 이뤄냈



다.

남자 개인전 100kg 이상급에 출전한 김민성은 결승에서 용인대 장유민에게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지만, 단체전 우승의 일등공신으로 대회 최우수선수상의 영예까지 안았다.

세한대 유도팀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메달 사냥을 위해 남은 기간 굵은 땀방울을 쏟아낼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장성 야구꿈나무들, 한국 대표로 국제무대 출전

장성야구스포츠클럽 ‘제6회 아시아 국제 티볼대회’ 참가

장성군 소재 유소년 야구팀이 한국을 대표해 아시아 국제무대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다.

10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장성야구스포츠클럽 꿈나무들이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쿠시마현 아난시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 국제 티볼대회’에 대한민국 대표 자격으로 출전한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2024 청소년 생활체육 클럽대항 티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아시아 국제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8개국의 유소년 대표 선수단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티볼대회다.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미래 세대들이 스포츠를 통해 문화를 교

류하고 우정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장성야구스포츠클럽은 장성군 내 10~14세 유소년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기반 클럽이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들은 아니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꾸준히 훈련하며 함께 성장해온 순수한 야구 꿈나무들이다. 특히 출격을 앞둔 선수들은 생애 첫 국제무대 출전에 설렘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남도체육회가 그동안 유소년 스포츠의 국제 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해 지역 체육의 세계화 기반을 다지는 한편, 생활체육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힘쓴 결과라는 분석이다.

장성=이형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손흥민, LAFC 데뷔전서 PK 유도…시카고와 2-2 무승부

후반 16분 관중 환호 속 교체 출전

1-2 뒤진 상황에서 페널티킥 얻어내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와의 10년 동행을 마무리하고 로스앤젤레스(LA) FC에 입단한 손흥민(33)이 이적 사흘 만에 치른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데뷔전에서 동점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팀의 무승부에 기여했다.

손흥민은 1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저부의 시트릭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파이어와 2025 MLS 2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LAFC의 교체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후반 16분 투입됐다.

이어 1-2로 끌려가던 후반 32분 페널티킥을 유도해 LAFC를 패배 위기에서 건져 냈다.

LAFC는 드니 부앙가의 페널티킥 동점 골로 2-2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에게는 독일 분데스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이어 자신의 세 번째 프로 리그인 MLS에 데뷔하는 무대였다.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활약했던 토트넘을 떠나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최대 2650만달러(약 369억원)에 7일 LAFC 유니폼을 입었다.

2027년까지 지정 선수(Designated Player·샐러리캡을 적용받지 않는 선수)로 계약했고 2028년과 2029년 6월까지 두 차례 연장 옵션이 포함됐다.

손흥민은 LAFC 입단 기자회견에서 “서류 관련 등 준비할 것이 있다”면서도 “프리시즌을 잘 치르고 왔기 때문에 몸 상태에 대해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MLS 그라운드를 밟았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호흡을 맞췄던 위고 요



LAFC 유니폼을 입고 MLS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이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황남

리스가 골키퍼 장갑을 낀 가운데 3-5-2 포메이션으로 시카고와 맞선 LAFC는 전반 11분 선제골을 내졌다. 오른쪽에서 필리프 싱케르나겔이 올린 코너킥을 카를로스 테란이 골문 정면에서 머리로 받아 넣었다.

LAFC는 오래가지 않아 균형을 맞췄다.

전반 19분 LAFC도 상대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크로스를 올리자 라이언 홀러스헤드가 골문 앞에서 헤딩 슈트로 연결해 동점 골을 뽑았다.

골키퍼가 막지 못한 공을 수비수가 머리로 견어냈으나 이미 골라인을 넘어간 것으로 판정이 났다.

손흥민은 후반전이 시작될 때 잠시 벤치에 앉았다가 곧바로 또 몸을 풀어 출전 준비를 이어갔다. 후반 14분께 손흥민이 훈련복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을 준비했고, 마침내 후반 16분 마르티네스가 빠지면서 손흥민이 MLS 경기에 첫선을 보였다.

관중들은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냈고 그가 공

을 잡을 때마다 환호했다.

손흥민은 후반 22분 페널티지역 밖 정면에서 왼발로 MLS 첫 슈팅을 기록했으나 힘이 실리지 않아 골키퍼에게 잡혔다.

LAFC는 후반 25분 다시 리드를 빼앗겼다.

시카고의 조나탕 밤바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싱케르나겔의 패스를 이어받은 뒤 오른발 슈트로 LAFC 골문을 열었다.

그러자 손흥민이 나섰다. 후반 32분 LAFC의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으로 공을 몰다 상대 수비수 테란에게 밀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후반 36분 키커로 나선 부앙가는 오른발로 강하게 차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양 팀은 추가 득점 없이 2-2로 경기를 마쳤다. 손흥민은 추가시간에 골 지역 오른쪽으로 침투해 오른발 슈트를 했으나 수비수에게 막혀 아쉬움을 남겼다.

LAFC는 승점 37로, 서부 콘퍼런스 6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